

지식 · 기술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확대

- 중기청, 이업종교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도출노력 강화키로 -



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제공

□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제품개발 및 사후관리를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생산 등은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대세임에 따라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거한 핵심분야 역량집중 및 수평적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성 및 성과제고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. 특히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간 지식 · 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이 가속화 된다. 그동안 이업종간 교류 성과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공동사업, 융합기술개발 등 기업간 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지원 수요발굴 및 신규영역 확충 등 실질적인 성과창출 노력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.

-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은 업종간 경계를 뛰어넘는 이업종간 지식 · 기술의 융합화가 신성장동력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의 핵심이나 그동안 중소기업간 이업종교류활동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도 미흡했던 점을 인식
- 이업종 교류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“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”을 수립 ·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특히, 기존 단순 정보교류 및 친목위주의 구성 · 운영방식에서 탈피, 공동 R&D 및 마케팅 등 특화된 활동목표 설정 및 동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금번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

- ① 기업간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
 - 자발적인 교류활동 참여와 기업간 협력문화의 확산, 이업종 교류 인식강화, 지식 ·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 · 운영
 -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의 교류활동 및 체계적인 성공사례 우수사례집 발간 · 배포('09.12)
- ② 신성장분야 중소기업형 유망과제 발굴 · 육성 확대
 - 신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R&D 유망과제 도출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개발, 기업협동형개발 등 10년 R&D지원의 선도과제로 선정
 - 기존 단위교류회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교류회를 구성, 분야별 정책지원 수단 등을 연계

하여 체계적으로 관리·육성 구성된 별도의 교류회(모임)에 대해서는 “과제선정 > R&D > 사업화 > 투·융자 > 해외진출”에 이르는 단계별 패키지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지원

③ 지식·기술융합 성과확산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(멘토링 지원)

- 성공사례 발굴·확산을 위한 선·후배 기업간 성공 노하우를 공유·확산하고, 지식·기술융합 성공 정착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
- 전담 코디네이터 운용으로 교류회 초기부터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파트너 매칭, 기술융합을 조정하는 사전 기술기획 및 교류기법(기술 세미나 및 연수 강화)을 지원

④ 이업종 전문기업간 지식·기술융합 활성화 인프라 구축(DB구축)

- 단위교류회(274개)의 구성현황, 활동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(업종) 및 유형별 전문기업간 DB구축으로 통합 정보교류망 구축
- 경쟁적인 교류활동 등 동향정보의 장점을 파악·제공하도록 유도하고, 전문기업간 지식·기술융합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도출에 주력

⑤ 이업종교류 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(이업종중앙회 조직강화)

- 이업종중앙회는 정책수요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, 지역연합회는 지역 특성에 부합된 분야별 공동사업 발굴을 확대하고, 단위교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조직의 역량을 강화
- 단위교류회가 경영·정보교류활동과 융합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

⑥ 이업종 관련 제도적 기반정비

- 이업종교류 실태 및 성과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위탁사업 지원을 확대 하되 실질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위주로 재편

□ 중소기업청에서는 향후 동 방안의 차질없는 수행은 물론 일본 등 이업종교류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이업종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미래 성장동력 발굴·육성에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

- 특히 동 방안의 시행과 연계하여 금년 처음으로 “기술협력 멘토링지원사업”을 실시, 이업종 분야 선·후배 기업간 교류활동 성공 노하우를 공유·전수, 융합 R&D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.